

“고통 받는 이웃들 마음치유...”

황수경 명상리더십 센터장



황수경 센터장은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 대학원 교육학 석사, 동국대 선학과 박사수료, 미국 AAPC 전문심리치료사,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및 연구위원,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및 명상리더십센터장, 한마음과학원 회원, 동국대 명상심리상담학과, 마인드힐링 강사로서 후학을 지도하면서 나눔의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BBS TV의 <황수경의 심리상담 프로젝트: 마음, 인생을 바꾸다>를 1년간 진행하기도 했다. 동국대에서 명강사상을 2회 수상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힐링법회, 템플스테이, 명상강좌 등 불교계에서 진행되는 포교행사 현장을 다니다 보면 종종 마주치는 얼굴이 있다. 바로 황수경(50) 명상리더십센터장. 아담한 체구에 맑고 편한 목소리의 소유자인 그는 대중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동국대에서 강의를 하는 한편 사회 곳곳에서 마음치유 교육을 진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사과정 입학 후 오히려 교도소가 전공일 정도로 재소자 포교에 매진해 온 그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것을 발원하고 학생, 공무원,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마음공부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사회 불평등에 가슴 아팠던 유년시절
황수경 센터장이 타인의 아픔을 보듬고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 계기가 됐다.

“어릴 때부터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초등학교 시절 집이 가난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거나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선생님께 차별 당하는 친구를 보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돈 때문에 어린 친구가 야단맞는지 마음이 너무 아팠죠.”

황 센터장은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역사를 전공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학을 공부하던 대학시절에는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공장 근로자들에게 밤에 야학을 가르쳤다.

“전 여대생으로 편히 사는데,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회의를 느꼈어요.”

그는 사회를 바꾸려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학원에서 교육사회학을 전공했지만 소외된 이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음을 느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미국의 사회복지학이 제도적으로 발달된 것은 사실인데 뭔가 항상 비어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 서구의 많은 지식인들이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공허한 이유는 바로 마음이 빠져있기 때문이었어요. 사회를 바꾸려면 제도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찾고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마음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동국대 선학과에 진학해 박사과정을 밟으며 불교공부에 전착했다. 이론 공부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도 병행하고자 “팔만대장경을 줄줄 외운다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에너지 내 줄 수 없다면 소용없다”고 강조한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들을 상담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 한 소년범이 청송교도소로 가면서 그곳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제가 다닌 곳은 청송2교도소인데 가족들도 거의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봉사를 너무 많이 와서 막아야 할 정도인데 불교는 재소자 교화에 소극적이어서 신뢰가 거의 없더라고요. 한두 번 오다가 말 거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교도관을 설득해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체가 나 아님 없음’ 새기며 봉사
황 센터장이 재소자들을 만나며 가장 힘이 된 것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었다. 자성본래불, 누구든지 근본은 똑같은 한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믿음이 없었던 용기를 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행 스님께서는 ‘일체가 나 아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식 아님이 없다 그 말 말씀하셨어요. 재소자도 나와 돌이 아니라 ‘물랐을 때의 내 모습’이라고 하셨죠. 그들도 근본에는 역시 부처님 마음이 있고, 고정됨이 없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만일 저나 제 가족도 어느 전생에 몰라서 저렇게 감옥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부처님의 자비심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는 2001년부터 매월 청송으로 재소자들을 만나기 위해 왕복 11시간이 걸리는 강령군을 펼쳤다.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며 기도하며 다녔다. 그들의 무거운 업과 살아가는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 무겁고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웠다. 청송을 오가는

회비 못내 혼나는 친구보며 불평등 느껴 대학시절 야학 가르치며 이웃돕기 시작

교육·사회복지학 공부해도 공허함 커져 불교 관심 많은 서양인 보며 불교에 귀의

‘둘로 보지 말라’ 대행 스님 가르침 새겨 10년간 교도소 다니며 재소자 마음 달래

마음 감옥 갇힌 일반인에 마음공부 안내 많은 사람들 마음 빛 밝혀 주기 발원

길은 눈물의 길이라고 할 만큼 셀 수 없이 울면서 다녔다. 재소자들의 업장소멸을 발원하며, 대행 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 금강경, 반야심경>과 <한마음 요전>등을 사경하도록 했다. 손톱이 닳을 정도로 사경하는 재소자들, 출소하고 나서 사경한 것들을 모아 우편으로 보내주는 재소자들을 볼 때면 더 없는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았다. 한 번은 소년범으로 들어갔던 아이들이 나와서 취직을 시켜줬는데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차라리 제가 당하면 괜찮는데 절 믿고 취직을 시켜주신 분에게 피해가 가니 정말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한 번은 청송에서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사람이 나가서 다시 잘못을 저질러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날은 정말 서울로 올라오는데 힘이 다 빠져서 운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주위에서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짓을 왜하냐’는 말을 할 때면 ‘계속 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마다 출소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온다든가, 이는 스님이 부르셔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며 후원을 했다.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더 잘해야지, 힘내서 또 해야지’ 하면서 위로와 힘을 많이 받고 열심히 하게 됐어요. 마음을 담아 소리 없이 도움을 주시는 스님들과 도반들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는 청송에서 출소한 사람이 황 센터장의 연락을 기다리다며 동국대에 연락처를 남겼다.

“출소한 이후에는 만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사실 무서웠어요.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냥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난 뒤 출소자는 자기가 계산을 하겠다고 했다. 황 센터장이 청송까지 와준 것이 고마워서 나중에 나오게 되면 막일이라도 하고 돈을 벌어서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어 기다렸다는 말도 덧붙였다. 식사 후에는 황 센터장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면서도 함께 재소 생활을 했던 도반들에게 줄 영적금을 조금씩 모아 그에게 건넨 것이다. 황 센터장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런 사람을 안 만나고 피했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명절 때 전화도 오고 한 번도 귀찮게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힘들 때 저를 위로해주고 그래요. 그걸 시작으로 몇몇 연락이 오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대부분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마음잡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도 생겼어요. 사람의 마음은 평등하고 누구나 근본은 선하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황 센터장은 자옥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노라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생각하면 항상 속연해진다. 재소자들이 변하는 것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던 그는 재소자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내면의 부처님 마음을 찾을 수 있길 항상 기도하고 있다.

동국대 발전 기원하며 매일 108배 정진

황 센터장은 교정교화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왔을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군부대, 여성단체 등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 선(禪)의 대중화를 위해 재가자들에게 마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동국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불교대학 등에서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황 센터장의 동국대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학·석사를 이화여대에서 했지만 박사과정을 동국대에 시작할 이유도 불교학교인 동국대가 좋고 선학이 좋아서였다. 그는 교정에 부처님상이 있고 법당과 좌선실이 있는 대학은 거의 없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다. 그래서 황 센터장은 올해 개교 108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매일 정각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108배 정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학기 불교 전공 시간인 <간화선 실습> 시간에는 50여명의 수강학생들과 함께 ‘108주년 우리학교 지혜와 자비로 빛나소서’라는 발원을 담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일 정진을 했고, 이번 학기에도 학부·대학원 수업 시간에도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는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 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풀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총회회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지명, 휴암, 종암, 금산, 여승,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삶의 서원이자 살아가는 힘



한마음과학원에서 개최한 어르신 마음공부 프로그램서 황수경 명상리더센터장이 마을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불교적 가르침에 기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동국대의 존재의미는 한국 불교의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스님 교수님들이 계시고 스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학교가 불교인재들을 배출하며 더욱 발전하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황 센터장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는 상담을 하다 보니 전문적인 상담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참선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4년에 걸쳐 전문심리치료를 과정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동국대 심학과와 명상심리상담학과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황 센터장은 불교명상과 상담을 통합해 연구하고 강의하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선과 마음치유>라는 교양과목과 선학 전공시간에 학생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열고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학생들은 왜 대학을 다니는지 모른다고 해요. 진로에 대해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울해 하거나 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인데 대학 다니는 동안 자기 마음을 바로 보고 마음에너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꼭 배울 수 있었으면 해요.”

황 센터장의 진심어린 애정이 담겨서인지 그의 수업은 학생들이 “수업 자체로 치유가 되고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할 정도로 반응이 좋은 편이다.

국내에서 불교상담 분야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이론, 상담방법론, 연구방법론 모두 개척해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황 센터장은 다행히 이 분야에 학문적 열정이나 불교 상담에 대한 사명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 미래가 무척 희망적이라고 했다.

“불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가르침이고 상담도 사람을 위한다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불교상담은 불교학과 인문학에 새로운 빛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센터장의 강의 특징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 수업에서는 참선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마음 치유를 위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끔 했다. 그는 이런 방식을 한마음과학원의 한마음공생실천과정, 아버지마당, 한나루 교사 인성연수 등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9월에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과정인 <한나루 인성지도자 과정>에서도 강의한다.

오래 전부터 리더십과 경영공부도 함께해온 그는 명상 경영에 관심을 갖고 공무원, 기업들과 연계해 명상을 비롯한 마음공부를 안내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제조사들 못지않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감옥은 마음의 감옥이라고 했어요. 멀쩡한 사람들도 사탄 생각이나 업식에 꼬달려 괴로워하니 그게 감옥이죠. 각자에게 불성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서로를 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각자의 불성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 대학생, 기업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황 센터장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통을 해야만 대형 스님이 강조했던 공심, 공제, 공생의 도리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대형 스님 공부는 공심, 공제, 공생의 도리잖아요. 요즘 소통과 공감은 말하지만 먼저 마음으로 존중하면 소통할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대로 놔두고, 상담 기법이나 대화법만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근본입니다. 서로 마음으로 통하고 있으니 때로는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말해도 상대방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대에게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를 계속 입력해보세요. 저는 그 일이 녹고 변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어요.”

마음공부 전 세계 알리기 발원

황 센터장은 어릴 적부터 봐왔던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불신도 많았고, 도처에 존재하는 악(惡)을 보며 삶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대형 스님이 보여준 마음의 진리



황수경 센터장은 남녀노소, 계층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든 달려가 마음치유 강연을 펼친다.



불교문화사업단 임직원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황수경 센터장 사진=박재원 기자

를 통해 큰 희망을 얻었고, 이제는 스스로가 보탬이 돼 그 희망을 전세계에 심을 수 있기를 발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몸이 내가 아닙니다. 내면 깊은 한마음에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있어요. 누구나 마음은 자기발전소라고 하셨는데, 그 무한한 마음에너지 활용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며 공생하는 자유인으로 대장부로 살 수 있습니다. 대형 스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직접 체험으로 보여주셨고, 그 가르침이 살아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법을 전 세계에 알리려 한다는 것이 제 서원중의 하나예요. 근본이 원래 부처님인데도 자기 중생심과 업식에 갇혀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빛을 밝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아는 불교의 깨달음은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한다.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수행자, 부처님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대형 스님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마음인 것이다’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민해온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보살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더군요. 돌 아닌 자비,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이 한마음을 전 세계에 꽃피우는 보살의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보살행을 발원하고 전국을 누비는 황 센터장은 때로는 몸살로 고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行)이 삶의 원동력이자 살아가는 목적이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의 부처님, 주인공이 하도록 믿고 맡기며 관합니다. 또 혼자가 아니라 공심공제로 스님들과 도반들이 도와주시고 나누어주시기에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불사를 하는 것이 부처님과 선지식들께 은혜를 갚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생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한, 은혜는 갚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살아가는 목적이자 에너지입니다.”

이나는 기자 oasis1963@hyunbul.com

전법일기

베트남 청년 토안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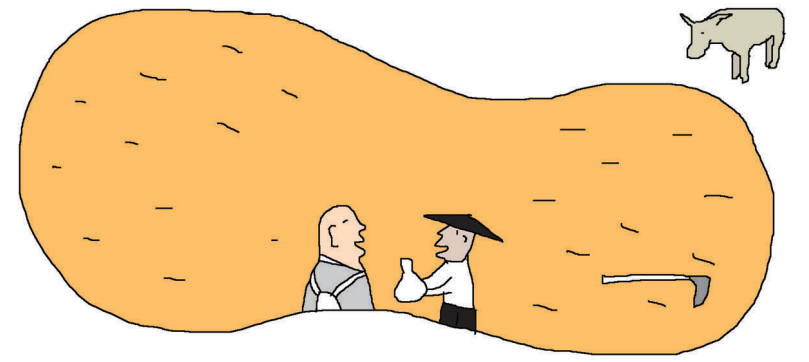
인사를 건넨 청년이 모자를 벗자 나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왼쪽 뇌의 3분의 1을 잘라 낸 청년의 얼굴을 본 사람은 대부분 놀라워했다. 마음고생을 나타내 듯 까맣게 타들어간 입술, 멍한 그의 모습에 맞이할 말을 잃었다. 그의 곁에는 아버지 반디가 이들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무슨 말로 이 가족이 겪고 있을 고통을 위로해야 할지 생각이 복잡했다.

“반디워요. 이곳이 이주노동자 쉼터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오늘밤은 마음 편안히 푹잠을 자세요.”

1차 수술을 마치고 그들은 갈 곳이 없었다. 28살의 착한 눈빛을 가진 베트남 청년, 토안(To An)은 이렇게 나와 인연이 시작되었다. 한국으로 건너온 지 3년째가

이 인연으로 나는 베트남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베트남 사람들은 유교문화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40년 전 생활상이 남아 있다. 대가족제도가 유지되고, 어른을 공경하며 제사지내는 풍습이 똑 같다. 부지런하고 외세의 침략에 1천년이 넘도록 독립을 위해 싸워 이긴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이 피해당한 마을에는 증오비가 세워져 있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불교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심걱정을 덜어 내야 할 빛이 있고, 그 마음의 빛



그림·박구원

되는 2010년 7월 늦은 밤 오토바이를 타고 마트에 다녀오다 한국인 자가용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것이다. 토안에 교통사고는 큰 재앙이었다. 출고 힘든 나날 속에서도 고향에 있을 가족들을 떠올리며 각오를 다졌던 청년이 한 순간에 꿈을 잃은 것이다.

동생에게 예쁜 옷을 사 줄 수 있다면, 대학교로 보낼 수 있다면, 맛있는 점심도 사줄 수 있거나 아버지의 약값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들이 있었다. 가족에게 그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 먼 땅에서 아프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희생을 감내하는 사람들이었다.

토안은 한국으로 건너오기 위해 진 빚 2천만 원이 있었고 당장 생활할 여비조차 없었다. 그의 통장에는 54,000원이 전부였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던 말인가,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그는 가해자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700만원에 합의했다. 그 돈은 모두 베트남 가족들에게 보내졌다. 따라서 토안은 무일푼이나 다름없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야 하는데 버스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토안을 도왔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빈약한 보상금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했고, 1년만에 약 7천여만원의 합의금을 이끌어 냈다. 수술도 잘 마쳐졌고, 2012년 12월 마침내 토안이 고향으로 갈 수 있었다. 나도 동행했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손내대접에 마을 잔치를 곁들였다. 민간외교의 결실이 마을 사람에게 “스님 고맙고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어느덧 다시 2년이 흘렀다. 지난 8월에 토안을 베트남에서 만났다. 사고로 인해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아직 남아 있고 가끔씩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그런데 기본 소식을 전해준다. 작년에 결혼을 했고 한 달 뒤에는 아빠가 된다고 한다. 너무 기뻐다. 토안에게 아이 3명은

남으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는 농사지는 땅콩을 건네준다. 정말 보람이 느껴졌고 몽클한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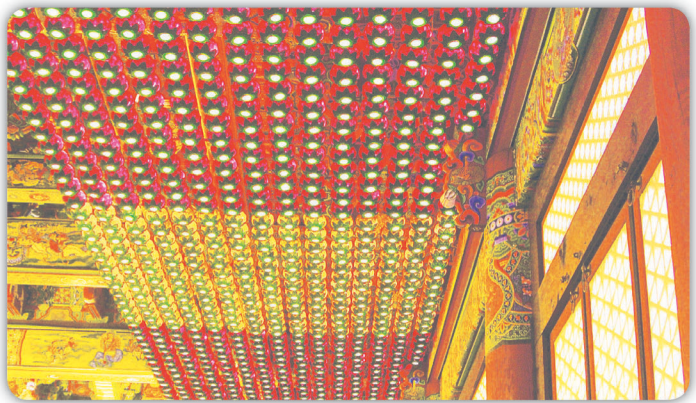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구미 대운사 주지)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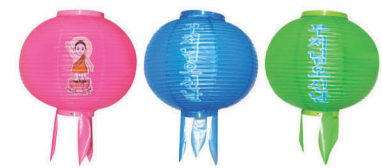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립 등



자 비 등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kwh
- 열 방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시설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인 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